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3월 1일 (제78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성공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크게 생각한다. 이견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아니면 스티브 잡스 정도는 되어야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목적한 바를 이룸'이라는 성공의 사전적 의미가 나타내듯 성공은 거대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전거를 못 타던 사람이 자전거를 탔다면 그는 성공한 거다. 컴퓨터를 못하던 사람이 '컴퓨터를 배우고야 말겠다' 했는데 그것을 해냈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영어를 잘해보고자 했던 사람이 영어를 한다면 그 역시 성공자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렇다. 그럼직한 목적을 이룬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성공하고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공의식을 쌓지 못하는 것이다.

성공의식이 성공하게 한다. 성공의식은 작은 것을 성공하면서 쌓여간다. 20등 하던 학생이 이번에 18등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18등을 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요, '아~ 나도 되는구나' 하는 성공의식이 자리 잡아 다음에는 15등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는 성공의식이 아니라 패배의식을 심을 뿐이다. 남산도 힘들게 오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지리산에 도전한다면 당연히 실패한다. 그러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나는 이 말씀이 성공의 방법이요, 성공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목표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게 되고, 그것이 곧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니 말이다.

크게 성공하고 싶은가?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 성공하라. 그것이 큰 성공으로 가는 에너지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값보다 가치를 본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재능을 타고 나도 그 재능을 발휘하려는 의지나 환경이 없으면, 그의 재능은 꽃피울 수 없다. 이런 경우 그의 재능이란 곧 사막에 던져진 다이아몬드와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사막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인가? 사막에 진정 필요한 것은 지친 나그네가 목을 축이며 쉴 수 있는 오아시스 아니던가?

또한 자신의 일 자체에 대한 기쁨 없이 의무나 집착으로 달려든다면, 아무리 불

의지하기보다 정직한 자세로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대저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잠2:6~7).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실 때나 사석에서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흥분된 마음이 지금도 가시질 않는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

값나간다고 떠들어대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 가치 있는 일, 곧 영생의 대업을 위해 온 생을 불사른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 영원세계에서 이루어갈 가치에 주목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숨을 던져가며 복음사역에 매진했던 이유다. 우리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교회 입구에서 기쁨으로 안내하고,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보조찬양으로, 통역으



목사님이 복음사역에 전력투구하시는 이유는 그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멕시코 까르데나스 집회 광경)

굴의 의지가 있다 해도 결국 그 노력은 한계에 부딪쳐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사람이 그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럼 누가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을까? 바로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다. 웅이가 많아 톱이 들어가지 않자 도무지 쓸모없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나무가 온 마을을 덮도록 무성하게 자라 사람들에게 실만한 그늘을 제공해주더라고 하지 않던가. 많은 실패와 실수로 웅이가 많은 인생이지만, 인간의 죄를

다. 이보다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 없다."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흥분이다.

사람들은 하버드다, 예일이다, 스탠포드다, 판사, 검사, 의사다 하며 명예와 권력을 좇아 혈안이지만, 재벌 회장의 아들, 딸들은 그런 학벌이나 지위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본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부(富)는 이미 주어진 것이요, 그런 실력자들은 돈으로 사서 부리면 되기 때문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대목 아닐까?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영생의 가치를 소유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로, 사회로,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반주자로, 자막으로, 촬영으로,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구보다 일찍 나와 예배를 준비하며,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물질을 드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바로 무엇이 진정한 보물이요,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영생인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가치를 아는 자가 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2015. 3. 10(화) ~ 20(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4:6~8)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6~8).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의의 면류관, 이는 절대 소박한 꿈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꿈을 향해 일생을 매진했던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 날에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절대 망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28~32).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꿈을 위해 감수해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때가 지나면 머지않아 영혼의 때가 옵니다. 육신의 때의 꿈을 쫓

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조용히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실속입니다. 그렇다면 실속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 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 조용히, 꾸준히 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고로 실속 있는 사람은 막 떠들어대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실속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출애굽 2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좇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낼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자입니다.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지요. 이후 갈렙 세대

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다시 등장하는데, 그 때 그는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찌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14:10~12).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조용히 여호수아와 함께 보았던 땅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가 되자 당당하게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알찬 땅인 헤브론을 받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곧 천국에 가서 당당히 받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도 받고, 더 나아가 열 고을, 다섯 고을, 한 고을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눅19:11~27). 시편 84편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니 천국의 문지기로 만족하시렵니까? No. 천국은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한 번 정해진 계급은 영원히 바꿀 수도, 진급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육신의 때에 쟁겨놓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의 문지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재벌, 왕족 부러웠는데 천국에 가서도 저택에 사는 자들 보면서 부러워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은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상은 아무나 받지 못하고, 의의 면류관은 더

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내게 주신 한 므나를 가지고 열 므나를 남기고, 다섯 므나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타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을 전도하고 내 이웃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텔레사 수녀처럼은 못해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낮아져 섬기고, 옥함은 깨트리지 못해도 십일조하고 내 힘이 닿는 한도에서 주님께 내어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일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성가대도 있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봉사 등등...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없고 형식,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말입니다.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함은 가지고 있으나 복지부동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

서 우리 일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는 사람은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영생의 나라에 꿈을 이뤄간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언젠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시대 목사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 년에 한

진정 지혜로운 자는 값보다 가치를 본다

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많이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니까 일 년에 한 명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한 30년 동안에 최소 30명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차곡차곡 저축하는 셈이지요. 일 년에 한 명 전도하라고 하니 쉬울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붙들 때까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꾀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박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한 분야에 톱이 되는 꿈도 꾀야지만, 영생의 나라에 대한 꿈을 확실하게 갖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압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상에 대한 확신, 왕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생의 나라에서 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라,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속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실속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실속을 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30년! 위대한 꿈을 쫓는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과가 크면 뭐해 맛있어야 사과지

는 것도 좋지만, 영혼의 때의 꿈이 더욱 중요한 것은 육신의 때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혼의 때는 영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영혼의 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먹고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저의 꿈도 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속이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알짜 이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느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 것을 안 사람이 자기

총회장 이초석 목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평생 흥분시킬만한 꿈을 갖자

남모르는 자기만의 은밀한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 인생은 역동적이다. 그래서 지체 있는 사람은 항상 꿈을 갖고 살아간다.

김수영이라는 젊은 30대 여성이 있다. 그녀는 책도 썼고, 영화도 만들었고, 영화에 출연도 했다. 꿈에 대한 전도사로 전 세계에 강사로 다닌다. 그녀는 지금까지 83개의 꿈을 가졌고, 그 중에 47개의 꿈을 이미 이루었다 한다. 그 중에는 부모님의 집을 장만해드리기도 했고, 성지순례를 시켜드리기도 했으며, 본인이 킬리만자로, 히말라야 산맥 등을 등산하기도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암울했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급기야 중학교 때 일진회에 가담하여 폭주족으로 가출을 반복하다 퇴학을 당했다.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사는 길은 공부 외에 없겠구나’ 하며 검정고시로 전남 광주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려 하니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50년 역사에 단 한명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간 사람이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며 졸업 후 공장에나 취직하라고 가족과 함께 말리더라. 그녀는 끝내 공부하여 고3때 골든벨을 올리는 주인공이 되었고, 마침내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 내 주위에는 꿈이 가난한 사람들만 가득했었다’고. 졸업 후 신문기자를 거쳐 골드만삭스에 취업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해외기업에 진출하고 싶어 인터넷 지식장에 해외

로 진출하고 싶다고 조언을 부탁했더니 이 구동성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기업에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직접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티켓을 끊어 직접 영국으로 날아가 도전해서 취업했고, 승승장구하여 자기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고 세계를 보니 자기처럼 세계에 나와 성공한 한국인이 너무 많더라. 그녀가 괴로워하며 왜 인터넷에 조언을 구할 때 좋은 말은 안 해주었냐고 하니까 그들 대답이 ‘우린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단다. 그 때 깨달았단다.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꿈은 있지만 도전하지 못했고, 꿈을 이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한가히 앉아서 댓글질 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란 것을. 꿈을 꾸고 도전하지 않으면 망상이 되는 것이다.

꿈이 필요한 때다. 내 평생 나를 흥분시킬 만한 꿈.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광명소를 하나 만들고 싶어 123층을 짓고 있단다. 그 꿈을 갖고 94세의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일하고 있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붙잡은 그것을 자기도 붙잡겠다고 오직 앞만 보고 모진고통 다 감내하며 달음박질하였다고, 달려갈 길 달렸다고 고백한다. 우리 목사님도 심판 때에 예수님 옆에 앉으시겠다고 일생을 불태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꿈을 꾸자. 꿈을 키우자. 위대한 꿈을 꾸자.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의 영생을 위하여!

이시대 목사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

근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나도 그 사건의 CCTV 동영상을 보았다. 아이가 급식에서 김치를 남겼다고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어른이 맞아도 휘청거릴 만큼 빵을 강하게 때렸다. 아이는 나가 떨어졌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아이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소름이 돋는 영상이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 경험 많고 질 좋은 다른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CTV가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있지만, 방임이나 정서적 무관심까지 잡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미를

잡아야지 거미줄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한 의사에게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라고 하였던 말씀이 기억난다. 그렇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말 안 듣는 아이, 밥 잘 안 먹는 아이, 보체는 아이를 잘 돌본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한 방법을 쓰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그는 망했다.

만물은 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만은 돈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목사님을 통해 새해는 “다시 시작하는 30년이 되자”는 주님의 음성이 떨어지면서 내 마음은 두근두근,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 밤사이를 가르고 새벽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자기 점검이 시작된 것이다.

말씀들은 여기저기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되어 내 혼과 영을 쫓아내고 있었고 화살처럼 지나간 세월의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30년 가까운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주일학교나 사춘기시절 천국과 지옥은 아마 있을 거라고 안위하던 신앙생활과는 달리, 압박감 가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야곱처럼 20살 꽃다운 나이에 목사님을 통해 제대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에게도 새 하늘이 열렸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뼈에 사무쳐서 밤을 새웠고, 기도 중에 만나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현신은 당연한 것이었고, 봉사는 옵션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필요하다면 내게 있는 무엇이든 다 내줄 수 있었다.

피를 토하는 듯한 목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나를 반하게 했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기고 꺾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 되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고백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어디로 발산해야 할지 모르고 뱉어내는 젊음의 오만과 치기, 그리고 수많은 방향들에게 나는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이 작별을 고했고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었었다.

그러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었나? 몇 날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 어떤 합리화화로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 마음은 계속 울고 있었다. 자괴감에서 벗어나고자 두려움 반, 결단 반으로 조심스레 시작하는 2015년이였다. 그리고 역시나 주님은 기대를 저버리

내게도 이 산지를 주소서

시지 않는 대단하신 분이셨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나에게서 묵은 지경을 갈아엎으심을 시행하셨고 동시에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을 주님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네 계획은 필요 없어”, “네 생각은 필요 없어”,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는 명목 하에 내가 하는 준비나 계산 따위 다 필요 없어.”

부끄럽게도 15년이 넘도록 3일 금식은 필요성도 못 느껴왔던 시간들을 철저히 뭉개버리시더니 인생의 경험들과 배우고 익혀왔던 영·혼·육의 지식들마저 모조리 배설물이라고 치워버리게 하시고 사선을 넘는 절박함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40년의 모진 광야생활에서 철저히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던 갈렙, 지도자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온전히 나를 쫓은 자라 인정받아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갈렙처럼 내게도 주실 기업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85세 나이 인생 역전노장이었던 갈렙, 모진 인생살이에

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인생의 고달픔과 부귀영화의 허망함을 알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기에 누구보다도 겸허했던 갈렙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에게 헤브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이었기에 반드시 취하여야만 하는 과업이었으리라.

올 한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는 처음 시작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을 촉구하시고 계신다. ‘다시 시작하는 30년이 되자!’고 외치며 불철주야 국내외를 뛰고 계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주님은 나에게도 계속 갈렙과 같은 갈망을 요구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저 헤브론 땅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곳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아낙 자손 따위는 보지 않겠나이다. 오직 그곳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보겠사오니 내게도 이 산지를 주소서.’

광주예수중심교회 하서연 전도사

ohzion1004@daum.net



살롬!
2015년에도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동안 찬양목사로 교단에 봉사하다가 주님의 뜻과 총회장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양사역을 통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총성뿐입니다. 이제 중국으로 떠나면서 바랄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뿐입니다. 2003년도에 일본 선교사로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선교는 북한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울

지난 6일, 김하영 목사와 어윤석 목사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려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세상음악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심령이 곤고한 끝에 사랑하는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벌써 목사님을 따라온 지 27년이 됩니다. 뒤돌아보니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목사님을 따라 전국을 돌며 집회했던 일들, 그리고 해외집회에 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저도 이제 이순(耳順)인 60을 넘겼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 중국에서 저의 달란트인 찬양으로 전도하며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갈급한 자들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펼치겠습니다. 같이 떠나는 어윤석 목사님

과 또 중국에 계시는 임충성 목사님과 하나 되어 총회장 목사님의 뜻을 잘 받들어 드리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떠납니다. 그동안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흑시라도 실수한 것과 시험을 준 일이 있다면 너그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광활한 중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중국에는 탄압과 감시 속에서도 주를 앙모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구원얻을 영혼이 즐비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등불을 준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중국선교사 김하영 목사

제 사역지는 넓은 중국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30년!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슬로건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다시금 중국이라는 광활한 대륙으로 이어집니다. 부족한 제가 총회장 목사님의 제자로, 동역자로 부르시고 쓰임 받을 수 있음에 한없이 기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 다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큰 뜻을 마음에 품어 중국복음화의 기틀을 다지는 사역자로 떠나기에 앞서 전 교단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안수를 받기 전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종을 동북아의 종으로 안수합니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으나 저는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동시에 예전에 꾸었던 꿈과 조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사역지를 보여주셨으며(큰 광야), "어찌할꼬! 어찌할꼬! 네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데..." 하시며 하나님께서 느껴 우시는 소리가 제 귓전에 들렸습니다. 또 연이어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높은 건물 위로 손을 잡고 올라가며 목사님의 입에서는 '하트'가 계속 나왔고, 그러면서 건물 정상에 올라하시는 말씀이 "높이 올라가면 네가 어디로 가야할지 훤히 보인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손에 네가 없어지면 네가 몇 갑절의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단다."라는 꿈이었습다. 17년 전부터 선교를 위해 소원했던 저의 꿈을 선명하게 인쳐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1일 주일 오전 10시 예배에 기도하던 중, 주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말씀 자체가 제 몸과 환경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십자가를 짚는줄 아느냐! 나는 12명을 부려 그 십자가를 짚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길 원한다. 나는 너희와 동역하길 원한다. 너는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늘보좌 우편의 축복과 우편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종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정도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이기에(산동성의 인구만 약 1억 명) 우리나라에서의 사역의 개념과는 많이 달리해야 할 듯합니다. 기다림과 인내..., 소유욕이 아닌 성취욕만이 단 열매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다니시는 선교지마다 우리교단 신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약 5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첫 응답이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교를 세워 믿음의 일꾼을 배출하고, 그 제자들의 제자가 또 배출되어 각 성으로, 각 동으로 파송되어 점진적으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이며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북한과 아랍권 선교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기도만이 길이며 대안입니다.

중국선교사 어윤석 목사

::Edu Section::

진리는 오직 주님 한분이심을 명심하자

우연한 기회에 상대주의 철학에 관한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프랑스 철학자 콩트(A. Comte)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그 사실이 절대 진리"라고 말했다.
나의 구원주이며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만이 이 세상 모든 진리의 기본이고 근본임을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알고 있는데, 그토록 고귀한 학식을 소유한 학자가 정답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지금 세상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사상으로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뉴에이지(new age)의 물결 속에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금기시한 동성애를 보편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들의 사랑을 쟁취하고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많은 음악과 문학작품들이 일상 가

운데서 들려지고 있고 손에 잡히며 눈으로 읽혀지고 있다.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유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배제되어진 채 그럴싸하게 우리의 영혼을 갇아먹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도 결국은 하나의 궁극적인 곳에서 만난다는 다원주의 교리로 빠져들고 있는 교계의 현상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이전에 유일신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린 채 인간들이 만들어낸 알팍한 생각을 시대사상으로 확장시켜서 우리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앞서나가게 해서는 결단코 안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고상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일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가

능했을 것이다.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요즘의 시대사상이 그럴싸하게 보이고 학자들의 철학 이론이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우리가 가슴 깊이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인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리 성정안으로 찾아와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배제되어진 사랑은 진리에 근거되어진 사랑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평화가 아닌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자.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와서 일상 가운데 슬그머니 공략하는 사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날마다 성령의 겹으로 싸워 이겨나가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